

삼성디스플레이, 중국에서 LCD 생산

2013년 10월25일 삼성쑤저우LCD 준공 ... LG도 2014년 상반기 가동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LCD(Liquid Crystal Display) 공장을 완공하고 신규가동에 돌입했다.

국내에서 부품을 공급해 조립 생산하던 것을 현지 직접생산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0월25일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시 쑤저우공업원구에서 8세대(2200mm×2500mm) LCD 공장인 <삼성쑤저우LCD> 준공식을 개최했다.

삼성쑤저우LCD는 57만평방미터 부지에 2012년 5월부터 건설을 시작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외국기업으로는 최초로 FAB(반도체 제조라인)부터 모듈까지 LCD 전·후 공정을 모두 갖춘 LCD 일괄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LCD 생산은 유리를 가공해 LCD패널을 만드는 전 공정과 LCD패널에 조명장치 등을 부착해 LCD모듈을 만드는 후 공정으로 구분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삼성쑤저우LCD는 울트라HD와 풀HD 해상도의 48인치, 55인치를 주력으로 생산해 중국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도 2013년 5월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서 8세대 LCD패널 공장 기공식을 갖고 2014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0/28>